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서비스입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흑백요리사’ 안유성 명장의 따뜻한 연대



광주-안동 전복죽 들고간 ‘흑백요리사’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광주 ‘가매 일식’ 운영자이자 대한민국 제16대 조리 명장인 안유성 셰프가 최근 경북 안동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전복죽과 김밥 800인분을 전달했다. 이날 봉사에는 전남 1호 조리 명장인 조혜경 셰프도 함께했다. 두 사

람은 광주에서 새벽 3시부터 음식을 준비한 뒤, 300km를 달려 안동 이재민 임시숙소에서 배식을 진행했다. 안 명장은 “몸만 빠져나온 어르신들이 끼니만이라도 든든히 챙기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다”며 “이재민들의 숙식 문제는 단기간 해결되기 어렵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 명장은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과 구조대원들을 위해서도 음식을 전달한 바 있다.

전남 서해안 섬, 지질유산 1등급 두 곳은



지질유산 1급 받은 전남 섬들

전남 서해안의 섬 중진도 서거차도와 신안 홍도가 지질유산 최고 등급(1등급)을 받았다. 지질유산은 총 5등급으로, 1등급이면 ‘세계적으로 중요한 보호 대상’이라는 뜻이다. 진도 조도면 서거차도 화산암에서는 오래전 마그마가 암석을 뚫고 지

나간 흔적이 발견됐다. 특히 나뭇가지 모양의 ‘주입형 암맥’과 둥근 형태의 암석이 함께 확인돼 그간 베일에 싸여있던 주변 섬들의 암석 형성 과정까지 밝혀졌다. 신안 홍도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인데, 특히 서쪽 해안은 다양한 희귀식물과 동물(771종)이 살아가는 ‘생물들의 낙원’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지 100선’ 1위를 차지한 적도 있는 명소다.

尹 정부, 경제성장률 ‘최악’... 1%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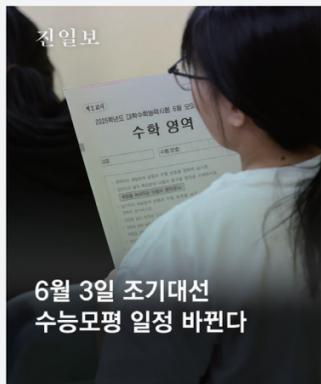


윤석열 정부 3년 경제 성적 ‘역대 최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함께 조기 퇴장한 정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제 성장률의 경우 1%대가 전망되며 코로나 시기였던 문재인 정부(2.38%)보다도 낮을 거란 예측이 나왔다. 세수결손은 감세 정책의 여파로 국세 수입 60조원이 감소했으며 ‘쉬었음’ 청년

수는 역대 최고, 실질임금 하락, 자영업 폐업 증가 등 민생 악화가 이어졌다. 이후 증시는 트럼프 변수로 불안 요소가 있지만, 일시 하락 후 회복이 전망되고 있으며 불안 심리에 따른 원화 약세를 지속될 전망이다. 부동산의 경우 관망세, 금리·DSR 시행이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6월3일 조기 대선에 ‘수능 모평’ 4일로 연기



6월 3일 조기대선 수능모평 일정 바뀐다

정부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같은 날은 임시 휴무일로 지정했고, 6월 수능 모의평가는 하루 연기됐다. 다만 이로 인해 입시 일정이 줄줄이 흔들리면서 고3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기말고사와 겹칠까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다. 여기에 의대 정원 발표 지연, 차기 정부의 수능 출제 기조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모의평가는 기존 6월3일에서 4일로 변경됐으며 시험 시간은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5분까지다. 원서 접수 마감일은 4월11일이며 성적 통지는 7월 1일이다.

박현일의 색채 인문학 200 주황색과 생활

불경기일수록 주황색 선호

●색채와 소리

베르너(Werner, Heinz)는 그의 저서인 ‘정신개발에 관한 비교 심리학’에서 낮은 소리와 높은 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높은 소리는 빨간색이 노란색 또는 주황색을 띠는 효과가 있다. 귀에 들리는 낮은 소리는 어두운색으로 이동하고, 높은 소리는 밝은색 쪽으로 이동한다. 낮은 소리가 들릴 때 주황색은 붉그스름한 색으로, 높은 소리가 들릴 때 주황색은 노란색에 가까운 색으로 분류했다.

라비냐(Lavignac)에 의하면, 각 약기는 각각 다른 색채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약기의 특별한 성질이다. 그러나 눈과 귀의 형태 차이로 관찰자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 있다.

트럼펫, 클라리온, 트롬본은 대부분 다홍색 계통의 음감이 표현된다. 호른은 옐로우빛 음을 결들이고 있다.

위드는 금관 악기와 색채의 상관관계를 다음과 같이 연구했는데, 금관 악기의 음색은 주황이 연상된다.

이런 상관관계를 볼 때, 색채는 바로 음악이다.

러시아의 화가인 칸딘스키(Kandinsky, Wassily)는 그의 저서인 ‘정신적인 조화의 예술’에서 색을 운동으로 파악했는데, 옐로우색은 비올라 또는 따뜻한 알토의 목소리다.

●색채와 마케팅

불경기일수록 핑크색과 노란색 그리고 주황색의 원색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끄는데, 이는 경제 위축과 국제 정세의 불안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오히려 과감한 색채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케참(Ketcham, H.)은 비렌(Birren, F.), 존슨(Johnson, L. K.), 테일러(Taylor, E. A.)들과 함께 ‘소득 설’ 중에서 상품의 구매력에 대한 색채의 영향을 연구했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판매는 약한 저채도의 노란색과 옐로우색으로 포장됐을 때

더 증가했다.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에 있는 와그너 색채연구소의 칼턴 와그너(Carlton Wagner)는 색을 분류계와 비 분류계 2가지로 세분화시켰다. 분류계의 색은 지위를 유지하거나 매력을 변화시키므로써 제한된 수의 사람들만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색으로 정의했다. 비 분류계의 색은 그 지위를 하향 조정해 더 폭넓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색으로 정의했다.

주황색은 비 분류계의 색이며, 평범한 사람들의 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품이나 서비스의 호소력을 광범위하게 확대하거나 사람들이 구매를 결정하기 위해 중요한 색이다.

주황색은 사람들의 주목성을 매우 빨리 끌 수 있으며, 격의 없는 친밀성을 나타내고, 이 색깔을 가진 상품이 모든 사람에게 잘 어울린다.

주황색은 일반적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호소력을 미침으로써 물건이나 개념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주황색의 생리적 영향에는 4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식욕 조절 중추(appetstat)가 자극돼 식욕을 왕성하게 만든다. 두 번째는 나른함을 유발하여 잠이 올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세 번째는 혈류의 속도가 감소한다. 네 번째는 주황색과 파란색이 결합하면 안정감과 고요함 그리고 잠착성의 감각이 발달하게 된다.

문화예술 기획자/철학박사·미학전공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진일보를 검색하세요
https://www.instagram.com/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